

<북클럽 운영 보고서>

* 팀 명 : 접착식 00학 팀

* 운영일시 및 장소 : 2014. 10. 30 (목) 19:00 – 21:30
서울시 강동구 호야 커피

* 참석자 명단 : 양 제 0 (20110000)
고 영 0 (20100001)
윤 병 0 (20100002)

* 토의 내용 : 유토피아의 사회적 특징에 대한 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찬반 토론

* 세부 사항 :

토론 논제 1) 유토피아의 노동 관습과 재화 분배 부문에 관한 토론

토론 논제 2) 금과 은에 관한 유토피아 국민들의 철학에 대한 토론

토론 논제 3) 유토피아 국민들의 선보는 관습에 관한 토론

기타 논제) 유토피아의 화폐와 노예제도

* 독 후 감 :

양제0 – 이상적이지 않은 유토피아

고영0 – 토머스 모어가 그린 이상향의 경제학적 분석

윤병0 – 현실과 이상 사이

토론 논제 1) 유토피아의 노동 관습과 재화 분배 부문에 관한 토론

- 노동 관습과 재화 분배 부문에서 책에 저술되어 있는 방식과 같이 분배한다면 현대 사회의 북한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양제0 (찬성) : 유토피아의 노동방식과 여가를 보내는 방식은 지극히 단순하다. 노동은 농업 중심의 단순노동이며, 여가는 지적 수준의 고양을 위한 여가가 아니다. 따라서 노동시간이든, 여가시간이든 간에 생산기술의 진보를 위해 노력할 만한 인센티브를 지닌 시간이 없다. 따라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질 기회가 없어 세계 경제 흐름 안에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장차 이 문제가 심화되어 지금 우리가 보는 북한과 같은 국가가 될 것이다.

윤병0 (반대) : 사회후생이론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각 개인의 효용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유토피아 국민 개인이 6시간 단순 노동과 여가를 보내며 느끼는 효용 수준이, 기술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효용 수준보다 크다면, 더딘 경제 발전을 이겨내고 인센티브가 없는 노동과 재화 분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효용 수준은 파악하기 어려운 변수이므로 쉽게 속단 할 수는 없다.

고영0 (결론) : 노동 관습과 재화 분배 문제를 유토피아와 같이 해결한다면, 경제학적으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있다. 또한 무임승차자의 문제에서 발전하여, 단순 노동과 단순 여가가 지속되기 때문에 기술의 진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후생이론에 따르면 사회의 후생은 각 개인의 가치와 행복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만약 유토피아 국민들이 단순 여가와 단순 노동을 하며 충분히 효용을 느낀다면, 경제의 발전이 조금은 더디더라도 유토피아의 국민들은 그 안에서 이타적인 노동과 재화 분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토론 논제 2) 금과 은에 관한 유토피아 국민들의 철학에 대한 토론

- 유토피아 국민들의 금과 은을 생각하는 방식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는가.

고영0 (찬성) : 타국이 금과 은을 어떻게 여기는지 알게 된다면, 교역이 많은 유토피아의 국민들은 본국에서 흔한 재화인 금과 은을 가지고 타국으로 이동할 유인이 생긴다. 입국과 출국이 자유롭지 못한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타국으로 불법출국이나 망명이 발생할 것이다. 교역이 전혀 없는 폐쇄경제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유토피아가 개방경제라는 저자의 가정으로 인해 이러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이다.

양제0 (반대) : 타국으로 불법출국이나 망명을 하는 이유는 생활수준이 더 향상된다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유토피아 국민들에게 타국에서 많은 부(wealth)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은' 생활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유토피아 국민들에게는 규칙적인 노동과 규칙적인 여가, 그리고 사유재산의 공유화가 밑바탕이 되는 생활이 '더 나은' 생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위에 언급한 사회후생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윤병0 (결론) : 이 논제는 무엇이 '더 나은' 생활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유토피아 국민들이 타국에서 본국보다 더 큰 부(wealth)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은' 생활이라고 판단한다면 유토피아 내부에서 불법출국이나 망명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반면에 규칙적인 노동과 생활, 사유재산의 공유화를 지향하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라고 판단한다면 범죄율의 감소, 재화로 인한 분쟁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 논제 3) 유토피아 국민들의 선보는 관습에 관한 토론

- 결혼 전에 예비신랑과 예비신부 측이 나체로 선을 보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영0 (찬성) : 유토피아 안에서는 나체로 선을 보는 제도가 관습이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 전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서로의 학력이나 외모를 보듯이 나체로 상대방을 보는 것도 유토피아 인들에게는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이다. 그리고 서로의 신체적 결함을 알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당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각자의 나체를 보는 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정보의 대칭성으로 바꿀 수 있는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윤병0 (반대) : 별거벗은 채 선을 보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이 행위는 그런 방식으로 선을 보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신체적 결점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결혼율의 하락이라는 부작용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양제0 (결론) : 나체를 보는 것은 단순한 정보교환이고, 결혼을 일종의 거래라고 가정한다면 나체로 선을 보는 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효율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인간 존엄성의 무시와 사생활 침해의 요인일 뿐이다. 이는 결혼율의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

기타 논제) 유토피아의 화폐와 노예제도

양제0 : 화폐가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화폐는 단순히 교환의 매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일 뿐만 아니라 가치의 저장, 회계 단위의 기능과 같은 사회 전반의 흐름을 좌지우지 하는 기능이 있다. 아무리 공유재산의 사유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화폐가 없다는 건 유토피아의 유지를 위해서도 손해일 것이다.

윤병0 : 유토피아 자체가 이상향인데 노예가 있다는 것이 모순이다. 노예제도 자체가 이상향에 반하는 행위이다.

고영0 : 물론 노예제도가 세습된다면 모순일 것이다. 하지만 유토피아에도 범죄가 발생하는데, 이 노예제도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이다.

유토피아(토머스 모어)

- 이상적이지 않은 유토피아 -

00학과 20110001

양 제 0

‘유토피아’는 1516년에 출간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경제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그려낸 작품이다. 저자 ‘토머스 모어’가 작품 속에 서술자로 등장하며, 가상의 인물 ‘라파엘 선장’이 이상적인 국가 ‘유토피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작품의 소재와 서술방식, 내용의 연계성 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나의 관점에서 작품의 ‘유토피아’가 완벽히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당대의 경제학 수준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겠다.

첫 번째로 노동관습에 기술되어있는 부분이다. 노동자들은 지적교육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별 관심이 없이 일만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 더 유용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의 기술진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p.74) 또한, 그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대해 한 벌로 만족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을 주입시키더라도, 현대는 물론이고 당대의 다른 국가의 국민들도 그렇듯이 ‘미(美)’에 대한 욕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유토피아’의 전 국민이 의복 한 벌에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은 ‘라파엘 선장’의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p.77)

두 번째로 종교에 대해 기술되어있는 장에서 ‘돈’에 대한 부분이다. 저자는 돈이 없어진다면 절도, 강도, 분쟁, 소란, 반역 등의 온갖 범죄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원시시대의 물물교환에서부터 발전해 온 화폐의 순기능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돈은 매우 중요한 거래의 매개수단이다. 비록 ‘유토피아’에서 거의 모든 재화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는 예외가 아닐 것이다. (p.153)

마지막으로 특정한 분야가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이상적이지 않은 부분이다. 저자는 ‘유토피아’의 완벽한 체제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국가가 바람직하게 운영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다. ‘유토피아’가 이상적인 국가라면 국부는 점점 증가할 텐데, 이에 반해 국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있다. ‘유토피아’의 국민들은 개개인의 취향과 개성, 흥미와 재능 등을 존중받

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이 기계의 일부분처럼 본인의 자리에서 단순한 업무만 계속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저자의 '유토피아'는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몰락할 지도 모른다.

비록 모든 내용에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유토피아'를 북클럽의 첫 번째 도서로 선정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체제 '유토피아'를 접해봄으로써 수업시간에 한 번도 다룬 적 없는 이상적인 체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유토피아(토머스 모어)

- 토머스 모어가 그린 이상향의 경제학적 분석 -

00학과 20100002

고 영 0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나라를 통해, 당시 영국의 사회적 문제를 향한 풍자와 비판을 하고 있다. 모어는 영국의 불합리한 정치와 경제 체제, 인클로저 운동이 불평등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을 유토피아라는 책으로 그려내었다. 유토피아는 현실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이상적인 공산주의의 국가이며, 모든 재화의 공유화를 지향한다. 필자는 경제학도의 입장에서 모어가 꿈꾼 이상향의 몇 가지 요소를 비판해 보고자 한다.

먼저, 노동 관습과 재화 분배 부분이다. 유토피아에는 모든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고, 각자 자신의 일을 한 가지씩 더 배운다. 유토피아 국민들은 모두 하루에 여섯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이 즐겨하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 현재 북한 체제가 꿈꾸는 노동 방식이 유토피아의 그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을 한 결과가 공유재산이 된다면 국민들은 노동을 열심히 할 인센티브를 잃게 된다. 따라서 생산량은 자연스럽게 저하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경제학적 용어로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 Problem)라고 한다. 공공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고 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이다.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유재산을 사유화 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모어가 그리는 유토피아의 철학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결론적으로, 모어가 그리는 유토피아가 실재한다면 북한의 현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금과 은을 대하는 그들의 방식이다. 유토피아 인들은 금과 은을 가장 저렴한 기물들을 만들 때 사용한다. 따라서 모든 이들이 금과 은을 천한 재화로 여기게 만들어 그 것들에 대한 욕구를 없앤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유토피아는 교역이 활발한 나라로 묘사되어 있다. 교역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타국에서 금과 은을 어떻게 여기는 지 깨닫게 될 것이다. 유토피아에서 흔한 금을 만약 타국으로 가지고 갔을 때, 자신의 생활수준과 예산제약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금을 가지고 타국으로 이민을 갈 유인이 생긴다. 자신과 똑같은 생활을 하던 사람이 타국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한다면 사람들은 하나 둘 씩 타국으로 떠날 것이다. 이를 경제학적 용어로 유행효과(Band Wagon Effect)라고 한다. 따라서 교역이 전혀 없는 폐쇄경제 하에서 금과 은의 희소성을 없앤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개

방경제 하에서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사람들은 유토피아에 남아 있을 유인이 없게 된다.

필자는 유토피아 국민들의 노동관습과 재화분배, 그리고 금과 은을 대하는 그들의 방식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필자의 분석은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이 가정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가장 유토피아의 모습과 비슷한 국가는 북한이다. 유토피아는 1,500년도에 쓰인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표현이 무척이나 세련되고 고급스럽다. 하지만 주장의 일부는 이해하기 힘들만큼 뜬구름을 잡기도 한다. 이 책은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책이지만, 분석을 통해 경제학적 사고를 고양하는데도 가치가 있다.

유토피아(토머스 모어)

- 현실과 이상 사이 -

00학과 20100003

윤 병 오

유토피아는 필자가 학자이며 모험가인 라파엘 히스로디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히스로디는 향해 도중에 찾아본 나라 중에서 유토피아라는 나라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고 하면서 영국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실정이 다르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가 영국을 비판한 대목에서 모어의 비판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걸핏하면 사형에 처하는 영국의 법률은 '학생을 지도하는 데 타이르기보다는 무조건 채찍질하는 선생과 같다' 고 하면서 '국민이 살아갈 만한 수단을 부여하여, 궁핍한 나머지 도둑질을 하여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정치를 해야 한다' 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영국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까닭은 지주들이 양모의 가격 인상에만 혈안이 되어 밭을 없애고 목장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땅을 빼앗긴 소작인은 결국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들을 붙잡아서 사형에 처한다. 이것은 마치 처벌하기 위해서 백성을 도둑놈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로도 인간의 생명을 보장할 수는 없다. 돈을 흠쳤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도 잔인한 정치이다. 벌칙이 엄하면 엄할수록 흉악한 범죄가 늘어날 뿐이다. 모어가 그리는 유토피아는 54주로 나뉘어져 각주 중앙에 하나씩 도시가 있고, 그 둘레에 전원이 있는 이를테면 그리스의 도시국가와 비슷한 형태의 나라이다. 전원에는 도시의 가구 수와 같은 수의 농장이 있어서 시민이 2년 교대로 농업에 종사한다. 이 유토피아에는 국왕이 없다. 국민은 모두 노동에 종사하되, 건강한 사람으로서 노동을 면제받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과 선택 받은 지식계급뿐이다.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정해지고 여가엔 교양을 쌓는다. 6시간 노동제로는 생산부족을 가져올지 모르겠으나, 유토피아에서는 영국과는 달리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자, 성직자, 귀족, 지주들까지도 모두 노동을 하므로 6시간 노동으로도 생산과잉이다. 또한 유토피아에서는 음식 담은 그릇으로는 사기와 유기를 상용하고 금은으로는 요강이나 불결한 용도에만 사용한다. 노예를 매는 밧줄이나, 죄인의 귀고리에 쓴다. 진주나 보석은 어린애들의 장난감으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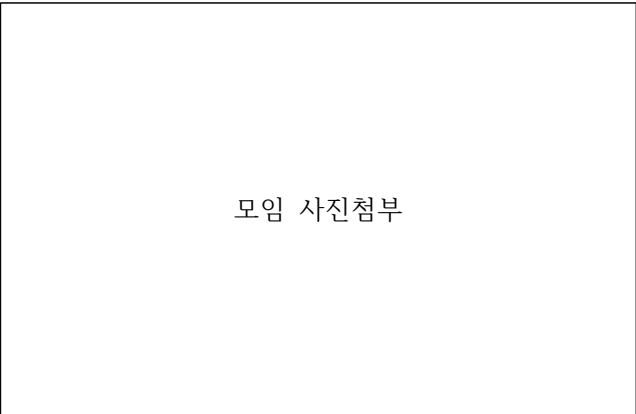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받으며 어른이 된 뒤에는 여가를 이용해서 공부한다. 그들은 라틴어 따위는 배우지 않고, 자기 나라 말로 공부하며 논리학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 천문 기상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미신에 속하는 점성술 같은 것은 알지 못한다.

윤리관은 우리들과 같으나, 인간의 행복이 무엇에 의해서 성립되느냐 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인다. 종교에 있어서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며, 신의 은총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인간은 내세에서도 선행에 대한 보상이 있고, 악행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참다운 쾌락을 선행 속에서 찾으며, 다른 나라와 같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도박, 사냥 따위는 유토피아에서는 배척하고 있다.

유토피아에서는 금전 화폐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범죄가 없다. 사기, 도둑질, 강탈, 싸움, 살인, 배신 등은 돈이 없어지면 동시에 사라진다. 두려움과 슬픔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사유 재산의 부정, 계획적인 생산과 소비, 인구 배분의 합리화, 사회적 노동의 계획화, 노동 조건의 개선, 소비의 사회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 실현을 모어는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유토피아'의 중요성은 그 이상(理想)에 있다가 보다 그 비판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무어의 유토피아는 당대의 커다란 쟁점으로 떠올랐던 세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이지만 이상적인 사회라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너무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플라톤의 추상적인 이상국가론 이후 최초로 비교적 구체적인 유토피아론을 전개한 작품이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문학사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도 아니며 순수 창작으로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사회에 대해 저술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



모임 사진첨부

<2014. 10. 30. 두 번째 조모임>